

“거미줄 중복규제, 윈스톱으로 날려야”

김문수 경기도지사 규제개혁실천 공동협약식에서 강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윈스톱 규제해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3월17일 수원시의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민간기관장들이 동참한 가운데 “규제개혁실천 공동협약식”을 갖고, “민관은 물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중복규제 해제 윈스톱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라고들 흔히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서울 인천과 함께 받고 있는 규제에다 군사규제 물규제는 물론 농지에서도 더 많이 규제를 받고 있다”며 “중앙, 도, 시군이 골고루 참여해 중앙에서 규제 해제의 중심에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그린벨트 규제에서도 평균치 35%에 비해 과친시는 그린벨트가 89%, 남양이 92%, 의왕 등 많은 전체 시 면적의 90%이상이 그린벨트”라며 “녹지는 없는 그린벨트 각종 필요 부지를 공공 용이하고 있다. 국민을 괴롭히지 않으려면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규제도 농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농민을 규제하고 못살게 하는 규제다. 그 좋은



규제개혁 공동협약식이 17일 경기센터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각시군 시장·군수 각급 기관 단체장들이 모여 규제개혁 실천 방안 논의와 협약식을 가졌다.

농지를 팔아도 규제 때문에 땅값이 매우 낮아 인근 산지나 잡초지를 사기도 버겁다”며 “농사를 짓고 싶지 않아도 다른 탈출구가 없어 농지를 끌어안고 있는 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통령께 지난주에 건의 드렸지만, 경기도 내 서해안 일대 8천만평과 미군공역지 5천만평 등 묶여 있는 땅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2억평이 넘는 규제를 받는다”며 “우리나라 집값은 너무 비싸다. 적어도 집값 땅값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비싸다는 영국보다도

비싼 게 우리나라 집값 땅값이다. 부동산 폭락에 따른 문제를 고려할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지사는 “대통령께 규제해제를 위한 윈스톱 서비스를 제안 드렸다”며 “중앙, 도, 시군이 골고루 참여해 중앙에서 규제 해제의 중심에서 이끌어 갈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는 이날 규제개혁실천지원단의 원활한 운영과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중소기업센터에서 김문수 지사 주재로 특별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61개 기관 대

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실천 공동협약식을 체결했다.

규제개혁실천 공동협약사항은 ▶도민생활편의 제고와 자율적인 기업활동 보장을 최우선의 목표로 추구 ▶규제개혁 One-stop처리를 위한 규제개혁 현장지원단 운영에 적극 동참 ▶불합리한 규제철폐 우선순수법 등이다.

특히 도는 신설된 경쟁력강화담당관실에 규제개혁신고 Hot-line(8008-8888)을 개설해 불합리한 규제 고충받는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24시간 접수하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 베트남과 문화교류 추진

하이증시에서 의정부시무용단과 합동공연

의정부시는 3월9일부터 13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자매도시인 베트남 하이증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한 지난 2005년 체결한 문화교류협약에 따라 합동 공연무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의정부시무용단이 이번 합동무대에 참가해 모두 6개의 작품을 베트남시 하이증시 시립무용단과 주고 받으면서 1시간여 동안 공연무대를 마련했다.

이번 공연에서 의정부시무용단이 휘날려 준비한 회룡의 울림(회룡은 의정부시의 상징인 태조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의 만남을 상징하는 회룡에서 나온 남을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실제로 공연이 끝난 다음날 베트남 북부지방 언론의 찬사와 함께 하이증시 관련 홈페이지가 접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양국 언론이 보도, 성(省)의 공산당 서기장까지 무용단을 초청 격려하는 등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의정부시는 최근 베트남 신부

폭생치사 사건이 한국 국민이 베트남 국민을 업신여기거나 집단적 거부감으로 비취었던 베트남 국민들과의 미묘한 갈등해소 역할을 강조했다. 하이증시는 문화교류에 이어 자매도시로서 교류격상을 주문해 양 시간 유대 강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합동공연장에는 600여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웠으며 시종일관 무대에서 박수를 때지 못하는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어렵게 수송해 간 북과 장고소리의 어울림에 베트남 하이증시 시민들이 넋을 놓고 관람하기도 했다.

하이증시는 이날 베트남 전통 민속무용과 우리 가요 만남과 아리랑을 불러 양 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해 나가기로 했다.

하이증시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직 개발이 덜된 농촌지역이다.

의정부시와 하이증시는 2003

년7월4일 우호협력도시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상호방문을 통해 우의를 증진시켜 왔으며, 특히 의정부시는 2004년7월 18일부터 26일까지 20여명의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여 무료진료 봉사를 하기도 했다.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유우연 특 탐 하이증시시장은 이번 하이증시 답방 공연을 통해 양시가 더욱 긴밀한 형태의 관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및 다양한 분야의 교류에도 더욱 힘써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공연에 나선 이미숙 의정부시무용단장은 “날씨도 덥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 고생했지만 합동무대를 통해 의정부시의 전통 춤을 마음껏 선보였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공연무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문원 의정부시장을 비롯 대표단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는 3월9일부터 13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자매도시인 베트남 하이증시를 방문했다.



의정부시무용단이 이번 합동무대에 참가해 모두 6개의 작품을 베트남 하이증시 시립무용단과 주고 받으면서 공연했다.

수질개선 위한 대책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신천, 한탄강, 임진강 로드체킹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주요 하천인 임진강, 신천, 한탄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3월15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시장·군수와 팔당물환경센터 전문가 및 지역환경단체인 한탄강자키키기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로드 체킹을 실시했다.

주요 로드 체킹 지역은 신천수계의 양주 위생환경사업소, 동두천피해공공사업협동조합을 거쳐 신천과 한탄강의 합수지점의 하천 수질 상태를 살펴보았다.

한탄강수계는 한탄강하류 지역인 연천군 전곡읍 고봉리 세물교의 하천오염상태와 연천군 환경사업소를 방문, 폐수처리 과정과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동두천피해공공사업협동조합 방문 시 애로사항 해결 검토 및 철저한 환경관리 당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피해공공사업협동조합 방문 시 폐수 배출업종의 대표적인 피해업종의 철저한 폐수처리를 당부하면서, 업계의 애로사항인 인력 확보, 해외시장개척, 환경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신천 등 색도저감대책 논의 또한 하천의 오염도는 주민이 체감하는 색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색도저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도입과 업체의 자감방안 강구 등 방류 하천수의 적극적인 색도오염 저감대책 추진을 당부하였다.

신천, 한탄강, 임진강 지역 수질개선대책 적극 추진 이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신천, 한탄강, 임진강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NGO와 북부지역 주민 모두가 하천과 환경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의지와 노력이 절대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경기도는 이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과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폐수배출업종 등에 대해서 기술과 예산지원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주요 하천인 임진강, 신천, 한탄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3월15일 현장 로드 체킹을 실시했다.

“동계체전 7연패 선수단에 과감한 포상”

김문수 경기도지사, 땀흘려 노력한 점 높이 평가해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동계체전 7연패 달성 선수들에 대한 전폭적 포상금 지급을 지시했다. 김지사는 3월10일 수원시 경기도체육회(회장 김문수) 제13차 이사회에서 “지난번 동계체전에서 유례 없는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도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꼈다”며 “최고 성적을 거둔 데에 최고의 포상을 하지 않으면 누구를 포상하는가.

포상금 수준을 유례없이 대폭 상향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지사는 이어 “앞으로 체육회 예산 가운데 그 어느 부분보다 격려금을 더 많이 책정해 놓으라. 특히 금메달은 은 동메달에 비해 확실한 성과를 낸 것이기에 금 100은 50 동 20만원 수준으로 늘려 책정하고 지급하라”며 “생활체육협의회와는 달리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이기 때

문에 금메달에 대한 가치는 인정해 줘야 한다. 체육회 예산 중에 다른 부분보다 최우선에 두고 확실한 지원을 하라. 이번엔 안 되고 다음 대회부터 상금을 늘린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지사는 “다관왕 선수에 대한 포상은 더욱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 3관왕 4관왕 이런 것이 여러 분 생각하는 것 보다는 훨씬 값어치 있는 부분”이라며 “김연아의 경우 우만 봐도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누구 못지 않게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가. 예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포상을 하라. 하계대회도 미리 포상의 폭을 환곤하게 조정하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지사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컬링 종목의 금메달 탄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포상도 하라”며 “이런 종목들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선 다른 사람보다 미려를 내다보고 남이 하지 않은 부분에서 먼저 땀흘린 것 아닌가. 경기 북부의 학교들이라는데 빠짐없이 찾아서 포상하라”고 덧붙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월10일 수원시 경기도체육회 제13차 이사회에서 “지난번 동계체전에서 유례 없는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도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꼈다”며 “최고 성적을 거둔 데에 최고의 포상을 하지 않으면 누구를 포상하는가. 포상금 수준을 유례 없이 대폭 상향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범시민 질서회복 운동 앞장

의정부 지역치안협의회 발족식 개최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 언론 등 17개의 기관단체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월18일 오전10시 의정부경찰서 회의실에서 의정부 지역치안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 언론 등 17개의 기관단체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월18일 오전10시 의정부경찰서 회의실에서 의정부 지역치안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김문원 의정부시장을 의장(당연직), 신정배 의정부경찰서장이 간사(당연직)직을 맡았으며, 이학세 의정부시의회 의장, 이영희 의정부교육장 등 학계와 언론, 법조, 경제, 노동, 시민 여성단체 등 각 분야의 대표 17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협의회는 21명의 지역치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지역사회의 기초질서 위반, 불법·폭력 시위, 공무집행 방해 행위 등 사회 전반의 법질

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범시민적인 질서회복 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정부경찰서가 이번에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법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법집행력 약화는 물론 범죄를 위한 위법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미흡, 범인 피격에 의한 순직, 공상 경찰관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범죄예방과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일관된 엄정한 법집행과 가시적 추진성을 창출코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김문원 의장은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예총 위상 강화위해 뛰겠다”

의정부예총 김용남 회장 취임·이흥재 회장 이임식



의정부예총 회장 이·취임식이 3월7일 의정부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300여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의정부예총 회장 이·취임식이 3월7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300여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흥재 전임 회장은 김문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와 한국예총회장의 공로패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12년간 의정부예총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준 예총 예술인 가족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새로 취임하는 회장의 능력이 탁월하므로 더욱 발전하는 의정부예총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김용남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전직 이흥재 회장께서 일구어 12년간의 예술혼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정부예총의 위상정립 강화를 위해 힘껏 뛰겠다고 밝혔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예총이 새로 취임한 회장을 중심으로 더욱더 예술문화 활성화를 통한 43만 의정부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7년도 국고지원 공연예술평가 A등급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8개항목중 5개항목 만점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집행위원장 이진배, 예술감독 이승엽)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07년도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2007년도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 대중음악, 다원예술 분야) 37개를 대상으로, 정량적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평가(30%)와 정성적 평가지표에 의한 현장평가(70%)가 병행되어 진행됐다.

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관객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려 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축제를 주최하고 있는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예술감독의 역량, 지난 6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축제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운영되었다는 평가였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지난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특성화연극제작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축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2005년에는 경기도 방문의해 10대 기념축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또한 국내축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



을 받았다. 올해에는 경기도 대표 10대 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 A등급 선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 초청을 통해 이루어진 질적 성장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 양적 성장이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이진배 집행위원장(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국내 음악극발전의 베이스 캠프라는 축제 위상 정립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극 소개, 상업적 뮤지컬 보다는 예술성 높은 작품 지향, 국내 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구성, 한 국형 창작음악극 제작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해 세계적인 음악극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음악극’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인정받았으며, 워크숍·세미나·심포지엄·체험행사 등 축제 주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